

『훈민정음』의 신화성과 반신화성

－ 도상성을 중심으로

송효섭*

【 차 례 】

- I. 훈민정음의 도상성
- II. 『훈민정음』의 신화성
- III. 『훈민정음』의 반신화성
- IV. 『훈민정음』의 뮈토세미오시스

국문초록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기표가 지시물을 나타내는 기호작용의 법칙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기표와 지시물 간의 도상적 관계에 주목하여, 이에 작용하는 신화적 유형과 반신화적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신화적 유형은 당시의 지식층의 사유를 지배했던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재의 원리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리에 군주의 절대적 권력이 결합하여, 그것은 더 이상 논박 가능한 로고스가 아닌 절대적 믿음의 대상인 뮈토스가 된다. 그것은 매우 형이상학적이며 또한 거대서사를 감추고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목소리이며, 또한 지역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훈민정음의 소리(글자) 체계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훈민정음의 도상기호의 생성에는 반신화적 유형이 개입되기도 한다. 훈민정음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세종이라는 군주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의도가 매우 계몽적이며 실용적이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닌 당대의 문제이며, 특정 권력 계층이 아닌 일반 계층에 대한 수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대의 실제적 상황에서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

* 서강대학교

이다. 실제로 최만리 등과의 담론적 투쟁도 있었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로고스적 인식에 의해 창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훈민정음의 도상기호에서 지시물은 인간의 발성기관인데, 이는 그 도상기호가 ‘몸으로부터 나온 소리는 그 몸과 닮는다’는 실제적인 지표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화적 유형에 지배된 형이상학이나 거대서사가 해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후, 훈민정음은 그것이 쓰이는 순간부터, 그것이 기뻐던 형이상학이나 거대서사의 뒤통스가 해체되고, 백성들을 편케 하는 실용적 기호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뒤통스에 대한 이러한 로고스의 해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열쇠어 : 훈민정음, 신화성, 반신화성, 뒤통스, 로고스, 뒤통세미오시스, 도상기호

I. 훈민정음의 도상성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은 세종에 의해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훈민정음은 두 가지 뜻을 갖는다. 하나는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로서의 훈민정음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언어를 창제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텍스트로서의 훈민정음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필자는 이 글에서 전자를 훈민정음으로, 후자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로 후자이지만, 결국 후자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전자로 연결된다. 텍스트로 남겨진 『훈민정음』은 여러 판본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문으로 쓰여진 『훈민정음』 해례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¹⁾ 해례본은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의도와 실제로 창제에 활용된 음가와 운용법을 간략하게 기술한 예의편(例義篇)과 이러한 일반론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 해례(解例)

1) 『훈민정음』의 판본으로는 해례본, 실록본, 월인석보 권두본, 박승빈 씨 소장본, 排字禮部韻略 권두본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신항,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113~116쪽 참조.

로 구성되는데, 해례는 다시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로 나누어 기술된다. 이러한 구성은 전체적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제적 사례를 통해 증명하는 매우 실증적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문자의 전체 구조로부터 그것의 활용방식까지를 일관된 체계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오늘날 훈민정음이 세계 언어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도 그런 까닭으로 여겨진다.²⁾ 해례본은 그 자체가 학문적 논점들과 주장들을 갖춘 학술서로서의 의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문적 문제 제기나 비판 또한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해례본은 앞으로 쓰게 될 언어체계 일반을 기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체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그 과정은 앞서 말했듯,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검증되기 어려워 비판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텍스트는 물론, 이후의 여러 문헌이나 연구에서 그 의의가 제시되어 왔지만, 필자는 이를 정치권력과 문화권력 간의 관계를 통해 찾고자 한다.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의 관계는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늘 상충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화합을 이룬 적이 거의 없었다. 문화가 인간 개인의 삶을 고양시키는 미시적 힘을 발휘한다면, 정치권력을 이를 통제하려는 거시적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지나치게 우세하면 문화권력은 거기에 기생함으로써, 문화권력이 갖추어야 할 문화적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 문화권력은 따라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려 하고,

2) 가령 한글의 근대성과 과학성에 대한 램지의 언급이 이를 말해준다.

“한글의 창제는 한국뿐 아니라 현대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속한 인간적 가치를 나타낸다. 그런 보편적 가치 중의 하나는 근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이다. 또 하나의 보편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이다. 귀족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사회에서 세종은 문맹 타파의 열정적 옹호자였던 것이다. 세종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부녀자도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 Ramsey,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World of the 21th Century”, *Scripta* 2, 2010, 김주원, 『훈민정음: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2013, 234쪽에서 재인용.

그러한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필자는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이 행복한 만남을 통해 가장 완벽하게 하나의 이념을 구현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에 기생하여 문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의 삶의 필요로부터 그것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정치권력이 주도한 것이다. 이는 마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꽃피운 것이 메디치가라는 막강한 정치권력과 르네상스의 여러 예술가들이 가졌던 문화권력의 행복한 만남에서 비롯되었던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주도로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해례본과 같은 텍스트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프로파간다와는 전혀 다른 매우 자유롭고 아카데미한 논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논술은 늘 논박의 여지가 있으며, 그로부터 새로운 지식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필자가 『훈민정음』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 글은 따라서 해례본에 대한 기호학적 독해를 통해, 여기에서 드러나는 신화성과 반신화성을 고찰하려 한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신화성과 반신화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호학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³⁾ 이에 따르면 신화의 기호작용은 뮈토스와 로고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담론에는 뮈토스적 경향과 로고스적 경향이 함께 존재하며, 이들 간의 결착이 극대화되면, 새로운 뮈토스의 생성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신화성이다. 뮈토스는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강력한 담론이지만, 논증을 토대로 한 로고스의 담론이 이를 뒷받침하면 그것의 신화성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뮈토스와 로고스는 근대적 관점에서 서로 비판적이고 대척적인 위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력한 뮈토스에 대한 비판적 논점을 제시하는 것을 로고스라 한다면, 이러한 것이 가장 활성화될 때 반신화성이 구현된다. 그런 점에서 반신화성은 맹목적인 믿음의 체계에서 벗어나서, 대화와 논쟁의 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말하며, 이러한 경향

3)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43~53쪽.

은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진보적 관점을 낳을 수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이 앞서 말했듯, 아카데미한 논술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반신화성을 구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담론은 이에 반하는 반대적 경향을 함께 갖는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순수하고 완전한 신화, 혹은 순수하고 완전한 반신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례본에서 드러나는 뫼토스와 로고스의 관계 역시 이러한 상충된 경향을 낳으며, 이로 인해 해례본은 물론 훈민정음이라는 언어 체계 역시 언제나 진행 중인 미완성의 담론으로 남는다. 앞으로 훈민정음은 무궁무진한 담론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를 실현시켜가는 과정이 곧 훈민정음 혹은 한글의 가치를 현양하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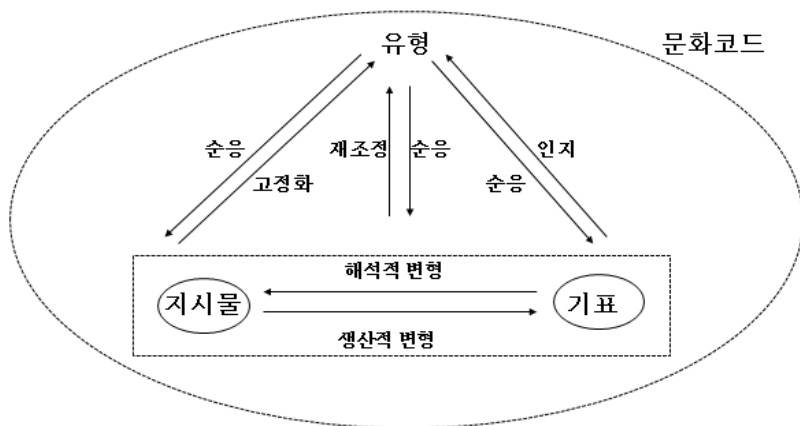
필자는 이 글에서 도상성을 통해 해례본에서 드러나는 신화성과 반신화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도상성은 도상기호가 갖는 성질을 말하는데, 도상기호를 퍼스는 “그 기호가 대상의 자질과 유사한 자질을 가짐으로써 그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⁴⁾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가 기호와 대상 간의 관계를 통해 기호를 유형화하는 데는 유용하나, 기호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나타내는’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도상기호가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더 진척된 논의가 필요하다. 에코가, 퍼스가 제시한 도상기호, 지표기호, 상징기호의 삼분법적 분류가 지시물의 존재를 단지 판별하기 위한 매개변수일 뿐, 기호의 형성과 그 기호가 내용과 관계 맺는 기호 생산의 양식들을 분류하는 데는 소용이 없다고 비판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⁵⁾ 가령 훈민정음은 그 안에 많은 도상기호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도상기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훈민정음 담론에 도상성에 대한 언급도 있다. 이 모든 도상성을 파악해내는 것만으로는 훈민정음 탐구가 완결될 수 없다. 도상기호가 대상과 유사하다고 할 때, 그

4) Charles Hartshorne & Paul Weiss(ed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247.

5) Umberto Eco,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p.178.

유사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세우다 보면 단순한 대상과의 유사성을 넘어서 인식에 의해 각인된 유사성 까지도 문제가 되어야 한다. 도상성은 인지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코드의 문제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도상기호의 기호학적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⁶⁾

[표 1] 도상기호의 기호학적 모델



이러한 모델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표가 지시물을 나타내는 과정에 일정한 상호적 변형이 가해진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유형과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형은 기표가 지시물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순응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 그 유형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역동적 과정은 단지 퍼스가 말한 도상기호의 분류적 개념을 넘어서야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 이 글에서 다룰 훈민정음의 도상성에 대한 관찰에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상성은 신화성

6) 이 모델은 그룹 μ가 제시한 도상기호의 모델을 필자가 수정 보완하여 만든 것이다. Groupe μ, *Traité du signe visuel: Pour une rhétorique de l'image*, Seuil, 1992, pp.135 ~141. 송효섭, 『신화의 질서: 도상기호학적 탐구』, 문학과지성사, 2012, 52쪽.

및 반신화성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데, 이들은 모두 [표 1]의 모델에서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의 판별을 통해 우리는 『훈민정음』에서 발현되는 신화성과 반신화성의 역동적 작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II. 『훈민정음』의 신화성

훈민정음은 정치적 지도자인 왕에 의해 창제되었으며, 그 창제 의도가 해례본 예의편에 명백히 밝혀져 있다. 문자의 필요성이 실제로 문자가 필요한 계층이 아닌, 왕이라는 정치적 문화적 지도층에 의해 자각되고, 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세종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예의편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

a) 우리나라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를 딱하게 여기고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 편토록 하고자 할 따름인 것이다.⁷⁾

세종에 의해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과정을 하나의 서사로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레마스의 행위소⁸⁾들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든 일은 백성들 간의 소통을 바란 세종의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종은 그의 지식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그 소통의 방법을 훈민정음을 통해 제공하였다. 따라서 세종은 행위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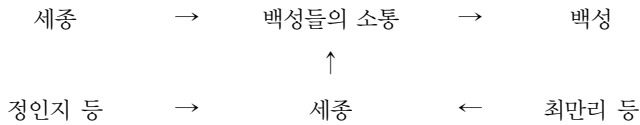
7)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爲此 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강신항, 앞의 책, 124쪽. 이하 해례본 및 관련 문헌의 인용은 이 책의 번역에 따른다.

8) 그레마스의 행위소 모형에 대해서는 A.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p.172~19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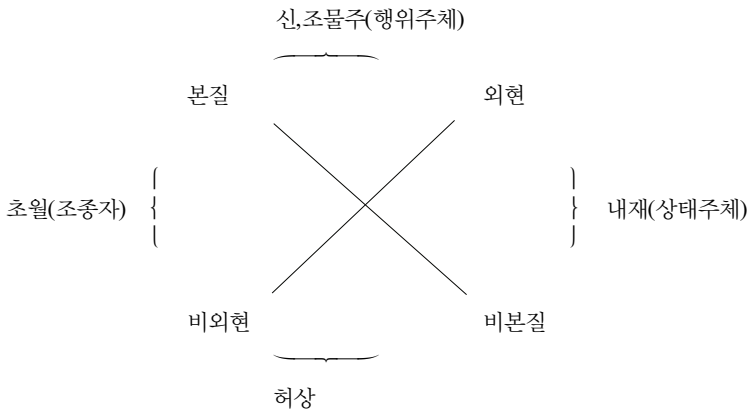
체이면서 또한 대상의 발송자의 행위소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발송의 수령자는 백성들이며, 그러한 과정을 돕는 원조자는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이고, 적대자는 이러한 창제를 반대하여 상소문을 올린 최만리를 비롯한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이다. 훈민정음 창제라는 서사프로그램에서 행위소 모델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표 2] 훈민정음 창제 서사프로그램의 행위소 모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종이 행위소 모델에서 주체와 발송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욕망의 주체이며, 그러한 욕망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이다. 서사에서 일반적인 영웅은 대개 주체의 위치에 놓인다. 그러나 세종처럼 주체가 발송자를 겸할 경우, 그는 일반적인 영웅을 넘어서는 부가적 특성을 갖는다. 에노가 제시한 기호사각형⁹⁾에 따르면,

9) Anne Hénault,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UF, 1983, p.70.



신과 조물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행위주체는 /본질/과 /외현/의 의소를 함께 갖지만, 초월로 나타나는 조종자 즉 발송자는 /본질/과 /비외현/의 의소를 갖는다. 세종은 이 두 행위를 겸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의 의소와 함께 서로 모순되는 /외현/과 /비외현/의 의소를 함께 갖는다. 풀이하면, 세종은 본질에 관여하는 존재이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종이 그 모습을 숨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소통’이라는 대상을 백성들에 증여하는 존재인데, 이는 백성들의 소통이라는 대상에 직접 관여하면서도 그 혜택을 받지 않음을 말한다. 세종은 그야말로 발송자로서 그리고 증여자로서 일종의 권력을 지닌 군왕일 뿐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문화적 혜택을 입게 만드는 시혜적 존재인 것이다. 그는 서사프로그램의 실천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식적 차원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¹⁰⁾ 보다 더 완벽한 신화적 영웅의 모습을 구현하게 된다. 백성은 실제적인 대상을 수령하는 수령자의 행위소적 역할을 하는데, 이는 이들이 직접 행위에 나서거나 지혜를 발휘하지 않는 오직 내재된 상태주체의 역할에 그침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소 모델에서 세종과 백성들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군왕과 백성들의 관계가 갖는 계층성을 보여주지만, 앞서 말했듯, 세종이 행위주체뿐만 아니라 발송자까지 겸함으로써, 이러한 계층성은 정치적인 뿐 아니라 문화적 성격까지 갖게 된다. 이러한 점은 세종의 존재가 갖는 절대성을 강화시키며, 훈민정음에서 신화성이 발현되는 토대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해례본에서 정인지가 쓴 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b)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시정 업적이 백왕을 초월하여, 정음을 지으심도 어떤 선인의 설을 이어 받으심이 없이 자연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참으로 그 지극

10) 서사프로그램의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 대해서는 *ibid.*, pp.80-84 참조.

한 원리가 있지 아니한 바가 없으며, 인위의 사사로움, 즉 어떤 개인의 사적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되지 않음이 아니나, 개물 성무의 큰 지혜는 대개 오늘을(즉 세종이 나타나실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음인제!¹¹⁾

여기에서 기술된 세종은 시공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존재이며, 개물 성무 즉 만물을 개발하여 일을 성취하는 신화적 존재로 기술된다. 선인의 설을 이어받은 바 없기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며, 이는 신화적 영웅이 갖는 일반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종에게 부여된 신화적 성격이 훈민정음과 맺는 기호학적 관계이다. 여기에는 도상성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를 앞서 제시한 [표 1]에 따라 설명해보기로 하자.

훈민정음이 세종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은 세종을 나타내는 지표기호이다. 그러나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이 세종이 갖춘 신화적 자질과 유사한 자질을 가짐으로써, 도상기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이라는 말에는 ‘백성을 가르치다(訓民)’라는 서사가 내포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의 주체가 모호하다. 그것은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려는 계몽적 의도를 가진 세종일수도 있고, 이러한 의도를 실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언어, 즉 훈민정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세종이 갖춘 행위소적 역할을 감안하면,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곧 세종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직접적인 도구로서 또한 세종의 행위소적 역할을 그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세종의 신화가 만들어졌다면, 훈민정음의 신화 또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유사한 성격은 ‘바른 소리(正音)’의 ‘바른’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가 세종이 의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것

11) 恭惟我殿下 天縱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盖有待於今日也歟
강신항, 앞의 책, 179쪽.

이어야 하며, 그 바름이야말로 세종과 훈민정음이 공유한 자질로 추출될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이 세종을 나타내는 도상기호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주목할 것은 ‘바른 소리’에서의 ‘소리’에 대한 문제이다. 소리를 단지 물리적인 음향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바름’이라는 수식어 때문이다. 물리적인 음향에서 바르고 그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소리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소리에 부여된 인간의 인지적 경향 혹은 윤리적 사회적 경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음은 이러한 복합적인 함의를 내포하게 된다. 치국의 요체로서 ‘예’와 ‘악’ 그리고 ‘성음’을 생각했던 당시의 유자들은 이를 토대로 표준음으로서의 정음과 정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올바른 운서를 편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²⁾ 이는 물리적 음향으로서의 소리와 인지적 문화적 경향으로서의 소리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리’가 갖는 도상기호로서의 특성을 간파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만파식적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듯, 소리는 단지 물리적 음향이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소리는 오늘날의 언어학적 개념으로서의 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바른 소리로 인해 바른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바른 소리는 바른 세상의 지표기호이지만, 이들이 모두 바른 자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한 도상기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리가 곧 문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훈민정음은 소리의 체계가 아니라, 소리를 나타낸 문자체계이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에서의 소리는 오늘날 언어학에서 말하는 음성이나 음운뿐 아니라 문자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프라그 학파의 유효성의 개념을 빌어 설명한다면, 훈민정음에서 성음과 문자의 관계에서 성음은 무표적이고 문자는 유효적인 것이다. 앞서 말했듯, 소리가 세

12) 위의 책, 28쪽.

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다면, 언어는 곧 소리이며 문자는 그것을 표출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앞서 인용한 의례편의 “일반 백성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의 기술에서도 알 수 있다. 모든 소통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차적이며, 글은 이를 보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데리다가 말한 초월적 기의¹³⁾처럼 소리는 형이상학적 근원이 되지만, 이러한 근원으로부터 기표를 분리시킨 데리다와는 달리 훈민정음의 문자는 이러한 형이상학을 나타내는 도상기호가 됨으로써 소리와 문자 간의 동기화가 강화된다. 이는 해례본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해례본을 포함하여 『훈민정음』은 새로운 음소를 제시하고 이들 음소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결합되었는지를 밝힌 것이다. 특히 제자해에는 훈민정음의 도상기호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술이 있다.

c) 천지자연(우주)의 원리는 오직 음양오행일 뿐이다. 곤(坤)과 복(復)의 사이가 태극(太極)이 되고(곤괘와 복괘의 사이에서 태극이 생겨나서), (이 태극이) 움직이고 멎고 한 다음에 음(陰)과 양(陽)이 (우선)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무릇 목숨 가진 것들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음양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는 것인데 생각하건대 사람이 살피지 못할 뿐이다. 이제 정음을 만들도 애초부터 슬기으로써 마련하고 애씀으로써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성음을 바탕으로 하여(성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 이치를 다한 것뿐이다. 이치가 이미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 귀신과 함께 그 用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¹⁴⁾

13)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p.49.

14)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 理既不二 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
강신항, 앞의 책, 130쪽.

먼저 온 우주를 관통하는 천지자연의 원리가 음양오행임을 말하고, 사람의 소리 역시 그 이치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소리를 만든 것이 슬기나 애씀이 아니라 거기에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음양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소리는 곧 천지자연의 원리 즉 음양오행과 같은 속성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소리로 표상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원리를 도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천지자연의 원리 즉 음양오행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계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서사적 성격을 갖지만,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닌 영속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성을 갖는다. 이 세상의 무엇이든 그것이 일관된 서사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믿음은 곧 뮈토스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로고스적 이념에 의해 뒷받침될 때, 그 신화성은 극대화된다. 천지자연의 도와 소리, 그리고 문자는 따라서 동일한 원리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도상기호의 역할을 한다. 도상성이 신화에 작용하는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천지자연의 도가 거대서사라면 이는 미시적인 현상들에 침투하여 그것을 운용한다. “어찌 천지 귀신과 함께 그 用을 같이 하지 않겠는가”는 바로 이러한 도가 어디에나 쓰여지는 것임을 말한다. 그러니, 문자의 생성 역시 이러한 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제자해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문자화한 과정이 기술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28자의 형상에 바로 이러한 천지의 도가 깊이 관여한다. 28자의 형상이 입에서 조음이 이루어지는 형상을 본떠 만들어짐이 밝혀지는데, 이러한 형상 역시 실제적인 현상 이전의 선형적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d) 대개의 사람의 소리 있음은(사람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행에 근본을 둔 것이므로(오행에 바탕을 둔 소리를) 사철에 어울려 보아도 어그러짐이 없고, (음악의) 오음에 맞추어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사람의

조음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조음되는 자음에 관해서 조음기관의 안쪽부터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e) 목구멍은 입안 깊은 곳에 있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 보면) 水에 해당한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공허하게 통하여 물의 虛明하고 두루 흐름과 같으니, 철로는 겨울이요 뿔으로는 羽이다.¹⁶⁾

f) 중성(글자)는 무릇 열한 자다. ·(소리)는 혀를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으니, 하늘이 자(子)시에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 맨 먼저 생겨났다.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¹⁷⁾

d)는 소리가 오행에 근본을 둔 것임을 말하는데, 이것이 사철 그리고 음악의 오음과도 일치한다고 말한다. 소리 즉 문자의 원리가 계절의 원리 혹은 음악의 원리를 포함한 우주의 원리에 따라 조화로워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e)와 f)에서 드러난다. e)에서는 목구멍소리를 설명하는데, 목구멍이 갖는 성질이 오행과 오시, 그리고 오음에서의 水, 겨울, 羽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 다음 이어지는 설명은 어금닛소리, 혀소리, 잇소리, 입술소리에 대한 것인데, 이들 역시 오행과 오시 그리고 오음의 각 항목에 일치하는 것이다. 온 우주가 이와 같은 일관된 원리에 의해 운행된다는 것은 소리와 행, 시, 음이 모두 동일한 원리를 공유함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도상적 관계로 얹혀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표 1]에서 제시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시물과 기표가 상호 생산적 변형과 해석적 변형의 관계에 놓인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보다 강력한 유형에 순응한 것이다. 가령 ○과 같은 목구멍소리가 물이나 겨울로 나타나는 기호

15) 夫人之有聲本於五行 故合諸四時而不悖 叶之五音而不戾 같은 책, 134쪽.

16) 喉遽而潤 水也 聲虛而通 如水之虛明而流通也 於時爲冬 於音爲羽 같은 책, 같은 쪽.

17) 中聲凡十一字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也 같은 책, 139쪽.

학적 변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의 유형, 즉 음양오행이라는 거대한 인지적 세계관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모음을 설명한 f)에서도 드러난다.

훈민정음에서 모음은 기본적인 ·, ㅡ, ㅣ와 이들 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역에서 천지인 삼재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가 하늘 이듯, ㅡ은 땅을 그리고 ㅣ은 인간을 나타낸다. 명백한 도상기호들이다. 이들은 또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생성과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명백한 서사를 갖춘 신화가 이들 기본적인 모음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소리가 우주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들로부터 나왔으며, 그와 같은 원리에 의해 운용된다는 것은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일화의 원리이며, 이것 역시 [표 1]에서의 유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훈민정음은 이와 같이 우주의 거대서사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생성된 도상기호이다. 여기에 세종이라는 군주의 목소리가 작용함으로써, 그 도상성이 갖는 신화는 극대화된다. 그러나 『훈민정음』에는 이와는 반대되는 반신화적 경향 또한 찾아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훈민정음』은 또한 로고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과학성과 실증성 그리고 계몽성을 함께 갖춘 텍스트인 것이다.

III. 『훈민정음』의 반신화성

앞서 [표 2]의 행위소 모델을 통해 세종이 갖는 행위소 역할이 그의 신화성을 증명하는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행위소 모델에서의 원조자와 적대자의 역할이다. 원조자와 적대자는 서사에서 본질적 역할보다는 도구적 역할을 하지만,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에서 이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18) Greimas, *op.cit.*, pp.178~180.

다. 세종이 신화적 존재라 하더라도, 역시 그에 대항하는 적대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적대자와의 투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세종이 갖는 절대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적대자인 최만리 등의 학자들과의 싸움이 담론적 투쟁이라는 점이다. 실행의 과정이 아닌 기획과 조종의 과정에서 일어난 최만리 등과의 싸움은 일종의 인식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만리 등이 상소문을 통해 내세운 논리와 이에 대항하는 세종의 논리가 부딪치는 것은 훈민정음이 논쟁의 영역에 놓임으로써, 로고스로 간주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세종은 역설적으로 최만리가 내세운 뉘토스를 해체함으로써, 반신화적 경향을 보여준다. 『세종실록』에는 그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

g) 우리나라는 조종 이래로 지성껏 중국 문화를 섬기어, 오로지 중국 제도를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중국과 문물제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때를 맞이하여, 언문을 창제하시면 이를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혹시 (이런 의심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시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 새 글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곧 자형은 비록 옛날의 고전 글자와 비슷합니다만, 소리로써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 것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로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¹⁹⁾

h) 그대들이 말하기를 음을 써 글자를 합하는 것이, 모두 옛 것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을 달리한 것이 아니냐? 또 이두를 만든 근본 취지가 곧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언문도 역시 백성을 편안케 함이 아니냐? 그대들이 설총이 한 일은 옳다고 하고, 그대들의 임금이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²⁰⁾

19)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有駭觀聽 儻曰 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강신항, 앞의 책, 202쪽.

g)는 최만리 등의 상소문이고 h)는 이에 대한 세종의 반박이다. g)에서 최만리 등이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는 중국문화가 추구해야 할 이상형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언어 역시 그러해야 하는데,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만리의 논리는 새로운 언어의 창제를 반대하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로고스이지만, 중국문화라는 절대적인 근원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뮈토스이다. 이에 대해 h)에서 제시한 세종의 논리는 ‘백성을 편케’ 하는 실용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절대적 근원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기호의 생산을 추구하는 것이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이념보다는 실용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종의 생각은 충분히 뮈토스를 해체하는 로고스를 담고 있어 반신화적으로 보인다. 감옥에 갇힌 죄인이 언문을 알아 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든가, <삼강행실도>를 언문으로 읽어 충, 효, 열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종이 생각하는 언어의 실제적 역할이었지만, 최만리 등은 그것을 실제로 쓰이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옥리 혹은 어리석은 지아비나 지어미의 자질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²¹⁾ 이와 같은 본질주의를 해체한 세종의 생각은 일종의 기호주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관념도 담론화된 언어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탈근대적 언어관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만리 등이 훈민정음을 반대한 근거는 그것이 소리를 합해 글자를 만든다는 데 있었다. 이는 한자와는 전혀 다른 언어형태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지, 그것이 비과학적이라든가 비실용적이어서는 아니었다. 최만리 등은 글자 자체가 도상기호이어야지 그것이 분절되어 그 도상에서 벗어나 분절된 소리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글자는 초월적 기의 그 자체이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20)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薛聰吏讀 亦非異音乎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 汝等 以薛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같은 책, 209쪽.

21) 해례본 정인지 후서 및 『세종실록』 참조.

대해 세종은 설총의 이두의 예를 들면서, 뜻이 아닌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갖는 다양한 조합 가능성과 실용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그 당시로 보아서는 중국의 신화 그리고 옛것의 신화를 깨뜨리는 매우 진보적인 관점이었다. 결국 그것이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실현됨으로써, 그간의 공고했던 언어에 대한 본질주의적 신화가 해체된 것이다.²²⁾

이러한 양상은 훈민정음에서 도상성이 실제적인 것에 근거하여 구현된다는 점과 관련된다. 여기서 실제적인 것이란 물론 음양오행과 같은 거대서사가 아닌 소리가 발생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지표적 요소들을 말한다. 특히 신체의 발음기관은 그것이 바로 소리를 내는 근원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성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해례본은 매우 자세하고도 체계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i) 정음 스물여덟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첫소리(글자)는 모두 열일곱자다. 어금닛소리(글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헛소리(글자) ㅋ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글자) ㅍ은 입 모양을 본뜨고, 잇소리(글자) ㅌ은 이[齒]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소리(글자)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ㅋ은 ㄱ에 비하여 소리나는 것이 조금 센 까닭으로 획을 더하였다.²³⁾

22) 최만리 등은 세종과 논쟁을 벌임으로써 임금의 뜻으로 거역한 죄로 처벌을 받는다. 최만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치검, 조금은 의금부에 송치된 뒤 다음 날 석방되었다. 정창손은 파직되었고, 김문은 의금부의 재조사 끝에 ‘왕의 직접적인 고문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죄’(對制上書詐不以實)를 물어 곤장 100대와 3년의 도형(노역형)에 처해졌으나, 곤장은 면해주었다. 세종과 최만리 등의 논쟁이 이러한 처벌에 이른 것은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이 분리되지 않은 왕조 시대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이들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는 점은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이 적당한 긴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당시의 정치권력과 문화권력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 사건이다. 『세종실록』 참조.

23) 강신항, 앞의 책, 132쪽.

k) 一 (소리)는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丑)시에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一자가 두 번째로 생겨났다.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²⁴⁾

이러한 기술은 훈민정음의 도상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i)에서 ‘그 모양을 본떠서’라 함은 특정 대상을 나타내는 도상기호로서 글자가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ㄱ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뜬 것처럼 훈민정음에서 모든 자음은 인간의 발성기관에서 발음이 이루어지는 형상을 본뜬 것이다. 또한 ㄱ에 획을 가하여 ㅋ이 만들어진 것은, 같은 발성기관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되, 좀더 센소리로 나온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 역시 전형적인 도상기호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상성은 훈민정음에서 일정한 체계를 구성하는데, 이때의 도상성은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유형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k)에서 중성 즉 모음 역시 발성기관의 형상과 소리의 깊고 얕음에서 동기화되어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앞서의 기술에서 이러한 중성이 천지인 삼재에 근거하였음을 밝힌 바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거시적인 체계에 앞서 중성의 형상이 천, 지, 인의 실제적 형상과 유사함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앞서 말한 음양오행이나 천지인과 같은 거시적 체계로 확대시켜 나아간다. 실제적인 것으로부터 동기화되어 글자의 형상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것에서부터 글자가 생성된 것은 매우 실증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거기에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해야만 했던 것은 그 당시의 담론적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일 것이다. 로고스에 대한 강한 지향성과 함께 역시 그 시대의 규범을 하나의 뉘토스로 추종하는 신화적 지향성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이 세종의 의도대로 실제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훈

24) 같은 책, 139쪽.

민정음을 지탱했던 형이상학은 어찌 되었을까? 이는 오늘날 한글을 쓰는 우리 역시 다시금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가 쓰는 한글에서 훈민정음이 바탕을 두었던 음양오행이나 천지인 삼재와 같은 형이상학적 거대 서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잘라 말해, 이러한 형이상학은 훈민정음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훈민정음에서 음소들의 결합을 통해 음절이 만들어지고, 그 음절이 결합한 뒤에야 의미를 갖는 낱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소 차원에서 형이상학이 음절로 결합되는 순간, 각각의 음소가 가졌던 형이상학은 곧바로 해체된다. 하물며, 그것이 낱말로 만들어지고 또한 문장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문장이 만들어지고 소위 글쓰기가 이루어지면서, 한글은 수없이 다양한 관념과 현상을 기술해낼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갖게 되며, 더 이상 『주역』에 근거한 형이상학에 연연한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을 탈형이상학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훈민정음의 제자에 반영된 신화의 해체라 할 수 있는데, 비록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백성으로 하여금 소통을 편하게 하려는 세종의 뜻이 그렇게 역설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당대에 한계에서 발휘된 반신화성 즉 세종의 진보적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훈민정음』의 뫼토세미오시스

언어체계 자체로서의 훈민정음이 신화성을 보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기술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로고스이거나 뫼토스의 성격을 드러낸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러한 훈민정음이 토대를 둔 체계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로고스이면서 또한 뫼토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뫼토스와 로고스 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신화성과 반신화성이 구현되는 과정을 ‘뮈토세미오시스’라는 말로 지칭한다.²⁵⁾ 이러한 기호작용은 모든 담론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글에서 분석했듯, 훈민정음에서도 극명하게 구현되고 있다. 특히 도상기호로서의 훈민정음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뮈토세미오시스의 실현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필자가 제시한 [표 1]의 도상기호 모델은 훈민정음의 도상성을 살피는데 매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도상기호는 기표와 지시물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단지 그것만으로는 도상기호의 생성에 대한 인지적 사회적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 [표 1]에서 제시했듯, 이들의 도상적 관계가 특정한 유형의 지배를 받거나 그 유형을 형성함으로써 그 도상성이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호작용은 곧 코드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분석했듯, 『훈민정음』에는 기호를 만드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지시물을 나타내는 기표의 작용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생산적 변형과 해석적 변형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작용을 지배하는 유형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이 글에서 다루는 신화성과 반신화성이다. 기표와 지시물 간의 도상적 관계에 작용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필자는 신화적 유형과 반신화적 유형을 제시한 셈이다.

신화적 유형은 당시의 지식층을 지배했던 음양오행과 천지인 삼재의 원리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리에 군주의 절대적 권력이 결합하여, 그것은 더 이상 논박 가능한 로고스가 아닌 절대적 믿음의 대상인 뮈토스가 된다. 그것은 매우 형이상학적이며 또한 거대서사를 감추고 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목소리이며, 또한 지역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것이 훈민정음의 소리(글자) 체계에 그대로 반

25) 필자는 ‘뮈토스’와 ‘세미오시스’를 합성하여 ‘뮈토-세미오시스’라는 용어를 쓴 바 있으나, 앞으로는 ‘뮈토세미오시스’로 쓰고자 한다.

송효섭, 「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매체의 통합, 분리, 횡단에 따른 뮈토-세미오시스의 지형」, 『기호학연구』 45집, 한국기호학회, 2015.12., 37쪽.

영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훈민정음의 도상기호의 생성에 반신화적 유형이 개입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훈민정음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세종이라는 군주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의도가 매우 계몽적이며 실용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닌 당대의 문제이며, 특정 권력 계층이 아닌 보편적 인간의 계층에 대한 수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당대의 실제적 상황에서 기획되고 진행된 것이라면, 그것은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만리 등과 의 담론적 투쟁도 있었는데, 이는 훈민정음이 로고스적 인식에 의해 창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도상기호의 생성에서 지시물이 인간의 발성기관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것도 거대서사적인 것도 아니다. 몸으로부터 나온 소리는 그 몸과 닮아야 한다는 실제적인 지표성을 함의한 도상기호가 생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쓰이는 순간부터, 그것이 기뻐던 형이상학이나 거대서사의 뒤통스는 해체되고, 백성들을 편케 하는 실용적 기호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문화적 가능성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뒤통스를 해체하는 로고스의 강력한 활성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

강신항, 『수정정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3.

김주원, 『훈민정음: 사진과 기록으로 읽는 한글의 역사』, 민음사, 2013.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_____, 『신화의 질서: 도상기호학적 탐구』, 문학과지성사, 2012.

_____, 「매체, 신화, 스토리텔링: 매체의 통합, 분리, 횡단에 따른 뮈토-세미오시스의 지형」, 『기호학연구』 45집, (한국기호학회, 2015.12.), 33-54쪽.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Eco, Umberto, *A Theory of Semiotics*,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Greimas, A. J.,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Groupe μ , *Traité du signe visuel: Pour une rhétorique de l'image*, Seuil, 1992.

Hartshorne, Charles & Weiss, Paul(eds.),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Hénault, Anne, *Narratologie, sémiotique générale*, PUF, 1983.

Mythicality and Anti-mythicality of *Hunminjeongeum*

Song, Hyo-sup

The process of creating *Hunminjeongeum* described in Haerye version of *Hunminjeongeum* shows a rule of signification by which a signifiant represents a referent. In this article, I will suggest two types, the mythical and the anti-mythical, that affect the iconic relation between signifiant and referent, and consider how they are realized in *Hunminjeongeum*.

The mythical type is shown as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and Three Elements Theory of Heaven, Earth and Man dominating the thought of intellectuals at that time. It had became *mythos*, that is the object of absolute belief, by connecting with the power of King at that time. It is very metaphysical and involves a kind of grand narrative. It is also the voice from the past in time and from China in space. It is reflected in *Hunminjeongeum*'s letter system intactly.

Meanwhile, the anti-mythical type also affects the creation of Icon in *Hunminjeongeum*. Even if *Hunminjeongeum* had been created from King Sejong's project, its intention seemed to be educational and practical. That is the problem of that time, not of past time, and for common class, not for ruling class. It can be considered as *logos* in that it had been planned and processed at a real-life situation at that time. Some arguments between King Sejong and liege Choi, Manri about the validity of *Hunminjeongeum* also show that the creation of *Hunminjeongeum* had involved the problem of critical *logos*. Above all, in that referents of Icons of *Hunminjeongeum* are the figures of human vocal organs, we can suggest that these Icons also implied an Indexicality implying actual connection between voice and body. It can be considered as a deconstrucion of metaphysics and grand narrative that had been dominated by foresaid mythical type.

Hereafter, from time when *Hunminjeongeum* have been widely used,

mythos of metaphysics and grand narrative that had dominated Hunminjeongeum have been deconstructed and Hunminjeongeum has become to realize its potential competence of pragmatic sign system for the convenience of common people. Therefore, I expect that the cultural potentiality of Hangul today can be realized by such tendency of *logos* incessantly deconstructing *mythos*, that is one direction of mythosemiosis.

Keywords : Hunminjeongeum, mythicity, anti-mythicality, mythos, logos, mythosemiosis, Icon

투고일 : 2018. 02. 28. / 심사일 : 2018. 03. 14. / 심사완료일 : 2018. 03. 19.